



KT&G
조세 정책



KT&G TAX POLICY



KT&G 조세정책

개요

목적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KT&G”)는 국내외 관련 조세 법규 및 제도를 준수하고 관련 세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 하며 외부 전문가에 의해 세무 리스크를 검증하는 프로세스 유지 등을 조세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의무를 수행하고 과세당국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적용범위

KT&G 및 KT&G의 국내외 자회사를 포함한 계열회사의 세무 관련 임직원은 본 조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본 원칙

세법 준수 및 성실 납세

KT&G는 ‘바른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국내외 관련 세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외 자회사 또한 모기업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준수

KT&G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저세율국가로 소득 이전을 하지 않으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해당 국가의 법규에 부합하는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하여, 세무전문가와 이전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거래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세무 운영

KT&G 내·외부 모든 거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회계·세무 시스템에 기록되어 과세당국의 자료 요청 시 성실하게 적법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세법 및 조세조약의 결점을 이용하거나 상업적 실체가 없는 조세조치를 운영하지 않으며, 조세 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한 조세 피난처 국가에 경제적 활동이 없는 법인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과의 관계

KT&G의 세무 관련 임직원은 세무 정책에 따라 세법을 준수하며 과세당국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무리스크 관리

세무리스크는 회사 차원 및 운영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KT&G는 회사 차원에서 준법정신에 근거하여 엄격히 세법을 해석, 관련 세금을 계산·납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그룹 내 자회사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영 차원에서는 회사 내 각 부서가 신규 거래 또는 규모가 큰 거래에 대해 재무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회계기준과 세법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무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KT&G의 세법 준수 여부는 외부 세무전문가(회계법인)가 검증하고 있으며, 그룹 내 모든 자회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무전문가는 해당 지역 및 국가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 풀(pool)에서 선정되며, 전문가 현황은 공유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KT&G는 투명한 세금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매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이연법인세 및 유효세율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 관리

KT&G는 효과적인 조세 정책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무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본 정책 및 세법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조세 정책의 내용은 KT&G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에서 검토하며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조세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하여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될 시 KT&G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KT&G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ESG 경영을 추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